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7. 4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LPG ‘엿박자’ (’17. 6. 1,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지난 30일 마지막으로 예정했던 ‘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TF’ 회의를 6월 말 한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기로 미뤘다.
 -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측 시나리오별 수급에 모두 문제없다고 밝히고, 늘어나는 LPG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.
 - 6월 예정된 ‘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’ 중간결과를 보고 환경비용을 논의해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부는 당초 4차례의 TF회의를 개최기로 하였으며, 3차 TF(5.30)에서 개선방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계획을 미룬 것이 아님
- ☐ 3차 TF에서 예정연은 사용제한 완화 시나리오별 LPG 수요를 추정하여 수입 필요 물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, 수급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 바 없음
- ☐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은 수급 가능성 측면과 환경효과분석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
 - 추후 환경부가 기재부 연구용역에 온실가스, 미세먼지 배출계수 등 최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 장 (044-203-5230)
정해봉 사무관 (044-203-5234)